

두드러진 고구려 중심의 인식체계

북한의 고대사 연구

朴性鳳

경희대 교수 · 한국사

남북한의 학술문화교류에 대한 기대와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의 역사연구에 대한 학술회의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영석) 주최로 5월 18~19일 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북한의 역사서 「조선전사」 33권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한국사 서술동향과 분석'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북한 구석기연구의 과거와 현재」(李隆助 · 충북대), 「북한의 고대사 연구성과에 대한 一論評」(朴性鳳), 「북한의 근대사 연구성과의 분석」(金興洙), 「북한의 현대사 연구성과의 분석」(許東燾 · 동경도립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다음에 박성봉 · 김흥수씨의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신라 · 백제는 고구려의 亞流로 파악

1979년에 출판된 「朝鮮全史」는 북한의 민족사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집약한 것으로 북한의 역사인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방대한 저술이다. 특히 북한의 역사학이 정치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저작된 이 책은 현 북한의 역사학, 나아가 현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관건이 되는 저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선전사」의 시대구분은 고조선 · 부여 · 辰國史만을 고대의 범주로 다루고 삼국시대 이후는 중세사로 돌리고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현 한국학계의 보편적인 시대구분에 따라 통일신라까지를 고대사의 범위로 간주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먼저 시대구분에 있어서 북한 역사학은 고조선 · 부여 · 진국을 고대 노예제사회로, 삼국과 발해 · 통일신라를 중세 봉건제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초에 전개된 노예제 · 농노제에 대한 논쟁의 결과 확정된 것인데, 그 후 「조선전사」에 이르기까지 별 변화가 없다. 50년대의 시대구분논쟁은 노예제사회의 아시아적 · 한국적 특질, 일반 양인농민의 존재형태, 예속의 본질 문제 등이 채검되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당시의 논쟁이 정치적인 이유로 종식됨으로써 아직 학문적으로는 검토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국가발전단계론이나 座佛交替 및 불교문화의 다양한 발전에



박성봉씨

대한 연구 등도 빠져 있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큰 문제이다.

「조선전사」의 삼국시대사 서술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고구려 중심의 인식체계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는 봉건적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성장발전하면서 마침내 漢의 침략세력을 구축하여 고조선의 영토를 되찾은 진정한 고조선의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또 고구려가 유목민족이나 隋 · 唐 등 외국 침략세력을 줄기찬 항쟁으로 무찔러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대외투쟁의 과정은 인민들의 자주성 수호라는 계급론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의 남진이나 평양천도를 삼국을 통합하려는 원대한 통일외지의 실현으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백제 · 신라의 대외투쟁이나 정복활동은 민족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민족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비난하고 있다. 이는 백제나 신라의 주체적 발전을 외면하고 고구려의 아류 썸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삼국의 문화가 고구려문화에서 원류한다고 강조하는 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미 평가절하

이러한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은 아무리 표면적으로 민족사의 주체성과 발전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민족사의 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발해를 이 시기 민족사의 중심으로 내세우는 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선전사」에서는 통일신라의 '통일'의 호칭을 제거하여 이를 '후기신라', 그 이전의 경우는 '전기신

「조선전사」의 삼국시대사 서술은

고구려 중심의 인식체계를 중시하고

있다. 백제나 신라의 주체적 발전을

외면하고, 그들의 역사를 고구려사의

아류 썸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역사관은 아무리 민족사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족사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다.

라'로 지칭하고 있으며, 신라의 삼국통일도 한반도 남부의 통합이라는 지역적인 통합으로 국한시키고, 나아가 신라의 통일전쟁도 외세를 끌어들이는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고구려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학계에서도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를 통일신라시대로 인식하는데 반대하고 이를 '남북국시대'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남북국시대'론과 북한의 인식체계는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할 점도 있지만, 통일신라의 역사적 위치가 사실과 다르게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면이다.

한국고대사를 올바르게 고찰하려면 먼저 그것을 민족통일의 전개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수많은 군소국가가 난립한 시기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것이 부여 · 고구려 · 마한 · 백제 · 가야 · 신라 등 대략 6개국으로 통합되고, 다시 3개국으로 병립되어 발전한 시기를 크게 삼국시대로 내세우고, 그것이 다시 신라로 통일된 이후에는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사의 광범한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시대를 종합적으로 성격짓고자 할 때, 삼국을 똑같은 역할과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고구려는 국가의 형성이나 문화의 선진성 또는 대외투쟁을 통한 민족자주성의 수호라는 측면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백제도 내적 통합성의 약화가 지적되기는 하지만 해양을 통한 대외발전과 특히 그 문화의 국제적 성격이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통일전 신라는 고구려 · 백제에 비해 후진적이었으나 사회의 내적 통합과 삼국통일의 동력을 축적하는 과정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삼국사를 고구려 중심의 일변도로 인식하는 견해는 한국고대문화의 폭을 그만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한편, 이러한 삼국 각자의 다양한 역사전개과정은 결국 서로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요청되기에 이르러, 마침내 신라를 주체로 한 삼국통일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신라의 정치 · 군사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영토상으로 불완전한 통합이 되고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가야 · 백제를 비롯한 삼국민의 일본진출과 특히 고구려유민에 의한 발해의 건국 · 발전으로 극복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영토상으로는 미흡하지만, 백제본토의 전부와 고구려영토의 핵심부를 모두 확보하고 그 주민들을 대부분 흡수하게 된 것은 민족형성과정의 한 완결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전쟁기에 있어서 唐세력의 개입에 대해서도, 「조선전사」의 견해처럼 신라가 사대적 · 반민족적 입장에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라가 고구려 · 백제의 유민과 더불어 對唐투쟁을 전개한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역사인식의 깊은 골 극복해야

결국 삼국시대의 영광을 이은 통일신라는 민족사를 양적으로 확대 · 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海東盛國이 된 발해의 발전이며, 일본땅에서 九州왕조나 大和왕조의 주역이 되어 끝내 오늘의 일본의 발전과 문화의 성숙을 있게 한 역사는 앞으로 續삼국시대의 한 발전상으로 보아 본격적 · 조직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신라 중심, 또는 한반도 중심의 汎三國의 민족사전개인식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 시기를 민족사에 있어서 남북국시대 혹은 발해중심의 역사체계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국부적이고, 또 통일신라의 민족과 문화의 통일적 중심성을 부당하게 격하시키는 편파성을 면하기 어렵다.

「조선전사」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이 남북한의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체제의 차이만큼이나 깊은 골을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민족사에 대해 크나큰 애정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머지않아 남북한이 민족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